



부모님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자녀교육

2022-보건30호

춘포초등학교 교장실 842-8213. 교무실 842-8211. 행정실 842-8212, FAX 842-3448

‘양성’이라는 단어에는 남성과 여성이란 양쪽의 성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남녀 각각의 타고난 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즉, 양성이 한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무시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존중)입니다. 양성평등(양성존중)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성차별, 성차이, 성고정관념이라는 말 들인데요! 어떤 뜻을 가진 말들일까요?

『성차별,성차이,성고정관념 구별하기』

▶ 성차별..

생각이나 행동에서 여자와 남자를 공평하지 않게 대우하거나 성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

【예】 ① 남자는 싹싹해야 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

② 우리 학급에서 회장은 남자, 부회장은 여자가 해야 한다.

③ 남자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

④ 남자는 슬퍼도 울면 안 된다.

▶ 성차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생식기를 가지며, 성장하면서 신체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는 것

【예】 ①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

② 여자와 남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고, 자라면서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③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양이 많아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 성고정관념..

남자와 여자의 능력,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예】 남자는 중요하고, 싹싹하고, 용기 있고, 활기찬 일을 하고 여자는 안전하고, 정숙하고, 섬세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

평소에 나는 얼마나 양성평등한지 자신의 성존중 인지도를 한번 알아보세요.
아래 문장을 읽고 “예, 아니오”로 체크해 보세요.

- ① 가정일은 여자가 주로 해야 한다. (예, 아니오)
- ② 집안에서 모든 일에 남자가 우선이어야 한다. (예, 아니오)

뒷면도 있어요.

- ③ 여자는 임전해야 한다.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이나 '남자는 울지 않는 거다, 통이 넓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을 자주 한다. (예, 아니오)
- ④ 아들이 간호사가 되길 원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아니오)
- ⑤ 딸은 말 잘 듣는 숙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아니오)
- ⑥ 여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집을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아니오)
- ⑦ 남자아이 놀이와 여자아이 놀이는 구별되어 있다. (예 아요)
- ⑧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이므로 여성은 남성이 중심인 사회에 적응하여야 한다. (예, 아니오)
- ⑨ 남성이 여성보다 능력이 우수하다. (예, 아니오)
- ⑩ 남자는 눈물을 잘 흘리지 않으며 마음이 강해야 한다. (예, 아니오)

결과는?	예 ()개,	아니오 ()개
------	-------------	--------------

[해석_나는 얼마나 양성존중 할까요?]

☆ '예' 가 7-10개 위험경보!!

성고정관념이 심하신 편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고정된 생각으로 남녀차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예' 가 3-6개. 노란불!!

성차이를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가지도록 해주세요.

☆ '예' 가 1-2개. 훌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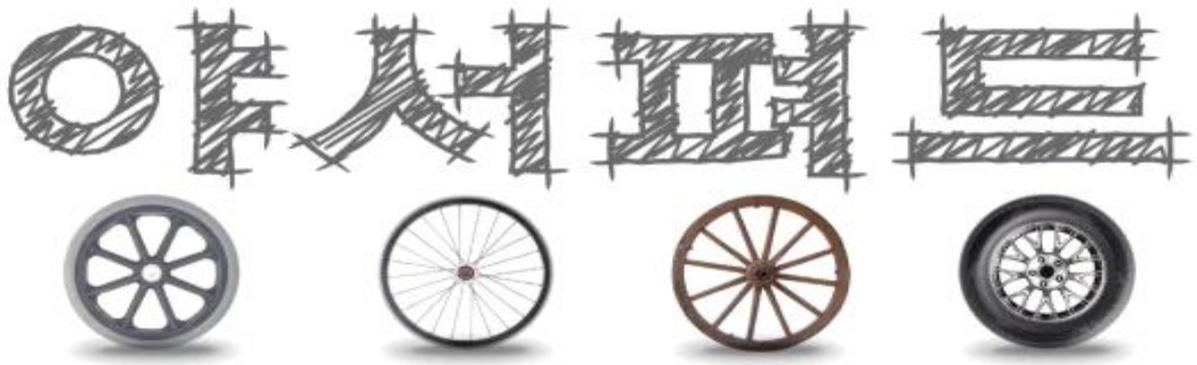
네! 양성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양성존중에 앞장 서 주세요.

일상에서 아들과 딸에게 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발언들 (양성평등진흥원제공)

아들에게	딸에게
<p>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래? 사내자식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사내자식이 통이 커야지 사내다워야 하는 거야</p>	<p>공주같이 예쁜 딸 여자니까 옷차림이 단정해야지 여자니까 예쁘게 걷고, 예쁘게 말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집을 잘가지 설거지는 여동생한테 시켜라</p>

2022. 10. 24.

준 포 소 등 학 교 장



모양은 달라도 **역할**은 같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어! **색다르다!**

남녀 차별 없이 생각한다면 이 그림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색다른 것입니다.
편견보다는 이해, 차별보다는 평등이 먼저 생각되어야 합니다.